

여행 경험 서사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

— 최부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윤인선**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경험의 서사화 양상
- III.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 <표해록>의 활용 가능성
 - 1. 문자를 매개로 재구성되는 역사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 2. 영상을 매개로 재구성되는 관광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 IV. 마치며

국문초록

본고는 최부의 <표해록>을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최부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스토리텔링 콘텐츠인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와 <EBS 세계테마기행 중국 명대 운하길을 가다>에 주목한다. 이 두 텍스트는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인식과 행위, 감정 등을 창작자가 여행을 바라보는 틀로 삼아, 그것을 재매개하는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형성한다. 이때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는 문자 매체를 통해 여행 경험을 재매개하는 과정에서 최부의 <표해록>을 매개로 재구성되는 역사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양상을 보인다. 이에 반해,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영상 매체를 통해 여행 경험을 재매개하며 최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30481).

**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storyforwish@hanbat.ac.kr

의 <표해록>을 관광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으로 확장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세 텍스트는 각각 최부가 작성한 명대의 운하길 여행기, 명대 운하길에 대한 역사 스토리텔링, 명대 운하길에서 나타나는 관광 스토리텔링이라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 텍스트는 최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명대 운하길에 대한 과거의 역사, 현재의 관광이라는 맥락에서 거대한 이야기 세계를 형성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살펴본 세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 양상은 추후 문화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열쇠어 : 여행 경험, 최부의 <표해록>,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 <EBS 세계테마기행 중국 명대 운하길을 가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문자 매체, 영상 매체, 역사 스토리텔링, 관광 스토리텔링, 재매개

I. 들어가며

본고는 최부의 <표해록>이 다양한 여행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활용되는 양상에 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최부의 <표해록>을 창작자가 여행 경험을 서술하는 인식의 틀로 삼고, 이를 매체에 따라 다르게 재구성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최부의 <표해록>을 비롯한 경험 서사가 여행에 대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인류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만나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켜왔다. 또한 낯선 환경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최근에는 여가 시간의 증대와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여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추체험'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다.¹⁾ 여행 경험을 추체험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들은 대부

1) 예전에는 여행지를 소개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이나 강연이 이러한 스토리텔

분 타인의 ‘경험 서사’를 활용하여 기획된다. 특히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문화 콘텐츠의 경우에는 서사로 재현되는 여행 경험을 시각화시키거나, 작품 속 인물을 축제나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OSMU의 모습 많이 보인다.²⁾ 하지만 본고는 여행 경험 서사를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OSMU가 아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이란 헨리 젠킨스(H. Jenkins)가 제안한 개념으로 여러 개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여러 개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바, 여기서 각각의 텍스트는 전체의 스토리와 서로 구별되는 독특하고 가치있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³⁾ 다시 말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OSMU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반복·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 전개되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독립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이야기 세계를 형성하는 스토리텔링 양상이다.⁴⁾

본고는 여행 경험 서사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행을 ‘경험하는 나’와 그것을 ‘서술하는 나’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⁵⁾ 여행에 대한 스토리텔링에서 ‘서술하는 나’는

링 콘텐츠의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블로그나 SNS와 같은 인터넷, 여행 관련 예능 및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더 나아가 여행 과정을 활용한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기획되고 있다.

2) 박기수, 「서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간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No.3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최시한, 「이야기 콘텐츠의 창작과 전용-원 소스 멀티유스(OSMU)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Vol.2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7.

3) 헨리 젠킨스, 『컨버전스 컬처: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충돌』, 김정희원·김동신 역, 비즈앤비즈, 2008, 95~96쪽.

4) 신동희·김희경,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연구: 스토리텔링과 개념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0, 한국콘텐츠학회, 2010, 181~183쪽.

5) 이윤희, 「여행 내러티브에 대한 퍼스 기호학적 접근」, 『기호학연구』 Vol.45, 한국기호

‘경험하는 나’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여행지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인식과 서술하려는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혼종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때 문학을 비롯한 경험 서사는 여행지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매체에 따라 다르게 서술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창작가가 공유한 여행 경험 서사에 대한 파생 콘텐츠라는 맥락에서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확장된 의미 세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이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개별적인 스토리텔링으로서의 가치 역시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최부의 <표해록>과 그것을 바탕으로 여행을 진행하고 그것을 각각 도서와 다큐멘터리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제작한 서인범의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⁶⁾와 <EBS 세계테마기행-중국 명대 운하길을 가다>⁷⁾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⁸⁾ 그동안 최부의 <표해록>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 최부의 여정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관광학적으로 혹은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학회, 2015, 265~266쪽.

6) 서인범,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 한길사, 2012.

7) <EBS 세계테마기행-중국 명대 운하길을 가다 1~4부>, 2012년 5월 14일~2012년 5월 17일 방영.

8) <표해록>은 조선 중기 문신 최부(崔溥, 1454~1504)가 경차관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부친상으로 인해 나주 본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태풍을 인해 명나라를 표류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여행기이다. 그리고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와 <EBS 세계테마기행-중국 명대 운하길을 가다>는 최부의 <표해록>을 번역하고 연구한 역사학자 서인범이 <표해록>에서 최부가 다녔던 명나라의 여정을 답사하면서 그 여행 경험을 서술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이다.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와 <EBS 세계테마기행 중국 명대 운하길을 가다>는 기본적으로 <표해록>에 나타나는 여정과 명나라를 바라보는 최부의 시선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도서와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여행을 서술하고 있어, 이 세 텍스트에 대한 논의는 여행 경험 서사의 활용 양상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다.⁹⁾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창작가의 경험을 함께 서술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표해록>을 비롯한 문학의 활용 양상으로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경험의 서사와 양상

개인 경험은 ‘기억’을 매개로 서술된다. 인지심리학에서는 특정 대상이 기억되는 현상을 ‘섬광기억(flashbulb memory)’와 ‘청크(chunk)’를 통해 설명한다. 이때 섬광기억은 정서적으로 각성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도록 뚜렷이 기억되는 특징을 지닌다.¹⁰⁾ 이에 따라 개인의 경험은 고립된 개체로 흩어져 있는 대신 서로 연결되어 ‘의미의 덩어리’를 이룸으로써 기억된다. 따라서 기억을 매개로 소통되는 경험은 ‘정서적 각성’을 일으킬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선택적 구성’과 ‘의미화 과정’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으로 귀환하여 왕의 명령에 따라서 과거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최부의 <표해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으로 나타난다. 최부는 <표해록>에서 단순히 명나라에 대한 여정, 장소에 대한 설명과 같은 사실적 요소만을 기록하지 않는다. 익숙한 현재와의 결별,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 다시 일상으로서 회귀 과정을 서술하면서 ‘섬광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특정한 의미 혹은 경험의 가치를 형상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기록은 규범적인 문장보다는 묘사가 나타난다.¹¹⁾ 여행 장소 혹은 견문에

9) 안영길, 『『漂海錄』 문화콘텐츠 만들기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1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김경미, 「최부 『표해록』의 관광학적 고찰」, 『관광경영연구』 Vol.83, 관광경영학회, 2018.

10) M. W. 마틀린, 『인지심리학』(6판), 민윤기 역, 박학사, 2007, 180~181쪽.

대한 묘사는 여행 경험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과 함께 서술 주체의 행위, 지각, 감정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경험의 가치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며 자신의 존재 혹은 자아에 대한 탐구를 서사화한다.¹²⁾ 다시 말해, 자신의 경험 중 특정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의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부의 <표해록>은 그가 여행 과정에서 기억하고 형상화하려는 자신의 존재, 자아에 탐구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부의 <표해록>은 “성종 18년 9월 7일”에서부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여행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연루된 자기 인식을 보여준다.

먼저 최부의 <표해록>에는 ‘낮선 곳을 표류하는 이방인’이라는 자기 인식에 바탕을 둔 경험의 서사화 양상이 나타난다.

고벽은 나더러, “우리 항주성의 서쪽 산인 팔반령에 옛 절이 있는데 이름이 고려사입니다. 그 절 앞에는 비석이 두 개가 있어 옛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겨서 거리가 십 오리입니다. 이 절은 송나라 때 고려 사신이 왔다가 지은 것이니 귀국 사람이 타국에 와서도 이처럼 절을 지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불교를 숭상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건 고려 사람이 지은 것이지요. 지금 우리 조선은 이단을 배척하고 유학을 숭상합니다. (중략) 고려와는 판판이지요” (중략) “고벽은 성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 그는 들은 것 본 것이 있는대로 숨김없이 말끔 나에게 일러 주어 불안을 없게 하니 그 은정이 얼마나 깊은가. 무슨 물건으로든 고마움을 표하고 싶으나 나의 행장을 다시금 보아도 쓸 만한 것이라곤 하나 없으니 있는 것은 다만 이 옷뿐이로구나.”

최부는 처음 명나라에 도착했을 당시 도적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왜

1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1984, 7~40쪽.

12) 이윤희, 앞의 글, 265쪽.

국 사람으로 오해를 받으며 많은 고난을 경험한다. <표해록>의 앞부분에는 최부가 도적으로 오해를 받아 경험한 고난들과 그 안에서 느낀 불안감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¹³⁾ 하지만 그가 조선의 신하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명나라 신하들로부터 환대받는다. 그러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최부는 이방인이라는 불안감과 이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위 인용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들은 것 본 것이 있는대로 숨김 없이 말끔 나에게 일러 주어 불안을 없게 하니”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최부는 명나라 사람인 고백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느꼈다. 고백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부에게 환대를 베풀기 위해 “고려사”와 같은 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소재를 제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부는 그것이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 조선의 가치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기에 이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명나라 사람들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최부는 여전히 이방인으로서의 불안감과 이질감을 느꼈고 이것을 <표해록>에서 여행지의 견문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서술한다.

문 오른편 인가에서 새장을 걸어 두고 새를 기르는데, 모습이 비둘기 같으며 부리가 붉고 길며 부리 끝은 누르스름하고 꼬부라졌으며 꼬리가 길어서 여덟아홉 치는 되겠으며 눈은 노랑고 등은 퍼렇고 머리와 가슴은 수목색이다. 그 새의 특성이 사람의 뜻을 아는 듯하며 소리가 맑고도 자유자재로 돌아가며 음정이 분명하니 사람이 말을 걸면 다 대답하곤 한다. (중략) “그러면 이는 송서의 새입니다그러. 나는 해동 사람이고요. 노어와 해동은 거리가 몇만 리인데 노을 여기서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행운이 아니라 할까

13) 이러한 모습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몰아 큰 고래에 이르렀다. 나는 발이 부르터 더 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내 팔을 끼고 끌며 내 몸을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하여 고개를 넘었다. 또 호송자가 갈아들어 20여 리를 갔다. 그 마을에는 큰 다리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우리를 마구 쳤다. 횡포와 약탈이 너무도 심하였다.”

최부, <표해록> 中

요. 나와 이새는 타향에 객이 된 것도 같고 그리워하는 것도 같고 모습이 파
리한 것 또한 같아서 이 새를 보니 애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그려”

위 인용은 그가 명나라 신하와 지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앵무새를 만
난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여행자로서 최부에게 앵무새는 새롭고 신기한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표해록>에 앵무새의 모습에 대해 상
세하게 묘사해 두었다. 하지만 그는 앵무새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그
새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조선(해동)과 거
리가 가까운 농서의 새(앵무새)를 보면서 서로 타향의 객이 되어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 당시 최부는 조선으로 귀환하는 과정이
었고, 최부에게 앵무새를 소개시켜준 부영 역시 “이 새는 늘 조롱 속에
있다가 마침내 타국에서 죽을 운명이지만 지금 귀하께서는 고국에 무사
히 돌아가셔서 임금과 어버이께 직분을 다하실 터이거늘 어찌 이 새와
같다고 하오리까”라고 말하여 최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하지만 <표
해록>에서 최부는 위 인용과 같이 표류의 위기에서 벗어나 조선으로 귀
환하는 과정에서까지 ‘낯선 곳을 표류하는 이방인’이라는 자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여행지에서의 견문을 서술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부의 <표해록>에는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
서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식 그리고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양반이
자 신하로서의 자기 인식이 형상화된다.

사촌하를 거슬러 동으로 올라가니 강의 남쪽 언덕에 석축으로 독을 쌓았
는데 길이가 30여 리나 된다. 물어보니 도사, 포정사, 안찰사 등 삼사가 협
력하여 새로 쌓은 것이라 한다. 십이리양의 견제교, 보안교, 대운모수 곧 홍
려하를 지났다. 홍려하 위에는 관청이 있는데 이것이 곧 당서진이다. (중략)
나는 “망망한 바다, 아득한 하늘 밖 소식을 전할 길이 없으니 어머니는 분명
내가 벌써 고기밥이 되었을 줄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다지
도 상하게 하고 있으니 나같은 불효한 자가 또 어데있으리까.”

최부는 명나라에서 환대를 받고, 견문을 살피는 과정에서 종종 조선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안부를 궁금해하며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서술한다. 위 인용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부는 명나라의 교각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자신의 소식을 궁금해 하고 있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서술한다. 다시 말해 그는 새로운 장소에서 견문을 넓히는 과정에서도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효도하는 자식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형상화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최부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행동을 위해 효도를 실천하려는 아래 인용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아닙니다. 생사가 달린 이 순간 어느 겨를에 예의를 차릴 수 있단 말씀 입니까. 우선 방편을 좇아 살길을 취한 다음 상복을 다시 입으심이 도리에 어긋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상주가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 것은 효도가 아니며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신의가 아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효도가 아니고 신의가 아닌 일을 나는 차마 할 수 없으니 언젠가 바르고 의롭게 대처하련다.”

뿐만 아니라, 최부는 <표해록>에서 여행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신하로서의 자기 인식 역시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주로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수차의 제작법을 좀 가르쳐 주시구려” 하였더니 “당신은 어데서 수차를 보셨나요?”하고 부영이 되물었다. “전날 소흥부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이 호수 언덕에서 수차를 돌려 눈에 물을 대고 있었는데 힘을 적게 들고고도 물을 많이 퍼올리니 과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던데요.”

조선으로 귀향하는 과정에서 최부가 바라본 명나라는 최신 문명을 지닌 나라였다. 그리고 수차 역시 이러한 문명의 산물이었다. 이때 최부는 전날 소응부에서 본 수차의 제작 방법을 일부러 물어본다. 그리고 수차가 있다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여행 과정에서 경험한 문명의 산물을 서술하며 조선의 신하로서의 자기 인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부의 <표해록>은 단순히 그가 경험한 명나라의 모습과 견문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해록>은 명나라에서의 표류와 조선으로의 귀환 과정에서 ‘낯선 곳을 표류하는 이방인이라는 두려움과 이질감’에 바탕을 둔 자기 인식과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양반과 신하’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식’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이러한 최부의 자기 인식에 바탕을 둔 여행 경험의 서술 양상은 이후 <표해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기획에 있어 창작자가 최부의 여정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여행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소를 바라보는 인식 체계/틀로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최부의 <표해록>을 미리 접하고 여정에 참여하는 창작자는 단순히 <표해록>에 묘사된 장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최부의 장소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경험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여행 경험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Ⅲ.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 <표해록>의 활용 가능성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와 <EBS 세계테마기행 중국 명대 운하길을 가다>¹⁴⁾는 모두 최부의 <표해록> 여정을 재구성한 서인범의 여행 경험을 담고 있는 답사기 성

14) 이하 각각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로 표기한다.

격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이다. 그리고 이 두 텍스트 모두 최부의 <표해록>을 여행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요인으로 삼아 전개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1) 산더미같이 쌓인 연구실 속 사료의 숲에서 잠시 일탈해 520여 년 전이 성종 19년에 중국 절강성 태부주에 표착했던 최부의 시선과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중략) 최부의 숨결이 베어 있는 조운로나 그가 견문한 곳을 온전히 더듬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그의 눈과 마음을 가슴에 담고 조운로 선상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담아내려고 한다.

(2) 중국 수양 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바다에서 표류하다 중국 강남에 도착해 <표해록>이라는 책을 남겼던 최부. 그가 남긴 기록을 따라 꽃잎이 날리는 중국 대륙 2500Km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1)와 (2)는 각각 서인범의 <표해록> 답사기인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와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의 도입 부분이다. 두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전개되는 두 텍스트는 모두 <표해록>에 나타나는 최부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에 바탕을 두고 전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도입 부분의 서술을 통해서 이 두 텍스트가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동일한 여정과 사건, 경험들을 도서와 다큐멘터리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에서는 여정의 시작을 최부가 처음으로 중국에 상륙했던 지점인 조운로에서 시작한다. 이에 반해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에서는 중국의 수양 마을에서 시작하고 있어 여정 구성에서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도서인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와 다큐멘터리인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의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는 서술자가 마치 최부처럼 중국에 도착하는 것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이에 반해 <명

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서술자가 봄 꽃잎이 날리는 중국의 수양 마을을 걷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걸음으로 들어가는 차이에서 더 나아가, 이 두 텍스트는 최부의 <표해록>의 여정을 따라가지만 서인범의 여행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3) 이 군은 내일부터 고된 여행이 시작되니 특별한 요릿집을 안내해주겠다고 했다. 소문난 샴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번호표를 받고 3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창가로 자리를 잡았다.

(4) (서인범이 벚꽃 거리를 걷는 장면과 함께) 항주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온통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항주와 소주가 있다는 속담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중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 항주입니다.

(3)과 (4)는 각각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와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의 일부이다.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두 텍스트는 단순한 <표해록>에서 보여준 최부의 여정과 경험을 단순히 재현 혹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3)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여행을 위해 요릿집에 들리는 서술이나, (4)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벚꽃 거리를 걸으면서 항주 여행에 대한 소회를 말하는 장면을 통해 서술자인 서인범의 독립된 여행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며, 이 안에서 최부의 <표해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표해록>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여행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처럼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와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서인범의 독립된 여행 경험에 바탕을 두고 제작된 것임과 동시에,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와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문자에 기반을 둔 도서와 영상에 기반을 둔 다큐멘터리라는 서로 다른 매체에 의해 재매개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소통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형상화된다.¹⁵⁾

1. 문자를 매개로 재구성되는 역사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는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여정과 장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문자 매체에 기반한 독자적인 텍스트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역사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양상을 보여준다.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는 서인범이 자신의 여행을 서술하는 다양한 과정에서 최부의 장소 인식을 활용한다.

커피를 마시며 이번 여행에서 마주칠 다양한 유적지와 경승지, 그리고 사람들을 상상하던 중에 검은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다. 남루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최부의 물결이 떠올랐다. 최부가 제주를 떠나던 1488년 윤정월 3일 그날도 흐리고 비가 왔다. (중략) 가쁜 숨을 내쉬며 삶을 되찾아 안도하는 최부와 그 일행의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언제나 그렇듯이 절정의 장면에서 깨어나는 꿈처럼 선회하는 동체의 움직임과 착륙한다는 기내방송이 나를 현실세계로 불러냈다.

위 인용은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에서 서인범이 자신의 여행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속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배를 타고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하다 중국에 도착한 최부와 비행기로 이동하는 서인범의 상황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여행 경험 안에 표류 과정에서 최부가 경험했을 불안과 고난을 연루시켜 서술한다.

이는 문자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라는 맥락에서 최부의 <표해

15)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 『재매개-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20~25쪽.

록>을 직접 인용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섬뜩하고 잔혹한 왜구를 진압하기 위해 명나라 홍무제는 군대의 지휘관 급인 지휘나 천호, 백호가 왜선 1척과 척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1급 승장과 은 50냥을, 일반 군사가 왜적 1명을 살해하거나 포로로 잡으면 은 50냥을 받았다. 명나라 군사의 월급이 쌀 1석이었으니 포상금이 얼마나 컸던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이곳 도저소의 천호인데 왜인이 국경을 침범했다 하여 이곳에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허 천호의 보고에 의해 병졸을 거느리고 가서 당신들을 내몰아왔소. 당신들의 마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여 내일 도저소에 도착하면 그대들을 심문할 것이오.<표해록>, 윤1월 18일)”

위 인용은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에서 서인범이 도저소를 답사하면서 최부의 <표해록>을 직접 인용하며 장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최부가 살던 시대와 시선에만 한정하여 도저소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도저소에 가는 여정¹⁶⁾과 함께 그곳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¹⁷⁾을 설명한다. 그리고 당시 도저소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최부가 심문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함께 서술한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를 접하는 독자들은 서인범의 답사 과정에서 장소와 관련된 중국의 역사 그리고 <표해록>에 나타나는 최부의 모습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16)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도저소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달려가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물었다. 앞으로 더 달려가라는 공허한 대답뿐이었다. (중략)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농부한테 길을 물었던 곳, 박물관에서 오른쪽으로 틀어 들어간 곳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도저소였으니 말이다.”

최부, <표해록> 中

17) “흥미로운 점은 최부보다 먼저 도저소에 발을 내디딘 조선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세종 25년 해문위에서 왜구 일곱 명을 붙잡아 북경으로 보냈는데 이들 모두가 조선 출신이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던 중 비바람을 만나 표류한 끝에 해문위에 도착했다.”

최부, <표해록> 中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는 서술자의 여정 속에서 장소를 먼저 경험한 최부의 인식뿐만 아니라, 비록 최부의 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장소와 관련된 역사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1) 안개 낀 이른 차임에 택시를 잡아타고 가흥역으로 가서 화해호를 탔다. (중략)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열차시각이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이 거의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했는데, 중국에서는 열차에 오르고 내리는 승객이 너무나 많이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2) 가흥 시내에 들어설 무렵에야 비로서 해가 얼굴을 내밀었다. “(중략) 그 성의 집들의 규모가 크고 넓음과, 풍경과 산물의 변화함은 영파부와 같다.<표해록>, 2월 15일” 최부보다 대략 450년 정도 늦게 가흥과 인명을 맺은 인물이 있다.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 선생도 가흥에 대한 소회를 읊었다. “(중략) 상점에는 에누리가 없었고, 가게에 고객이 무슨 물을 놓고 잊어버린 채 갔다가 며칠 후 찾으러 오면 잘 보관했다가 공손히 내주는 것은 상해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위 인용은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에서 가흥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에 관한 서술이다. 서인범은 먼저 (1)과 같이 가흥으로 가는 자신의 여정을 서술한다. 그리고 (2)와 같이 가흥에 대한 자신의 첫인상과 느낌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 인식에 관해 직접 인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3)과 같이 비록 최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가흥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김구의 기록을 추가한다. 이후 “최부가 다녀간 지 450년 뒤에 가흥에 온 김구”라는 챕터를 이어 김구의 피난처로서 가흥의 역사에 관해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은 독자들을 서인범의 여정 속에서 최부의 <표해록>과 함께 그 장소와 관련된 역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처럼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에서는 서술자가 장소에 다가가는 과정에 대한 서술과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 인식 그리고 김구

이외에도 최치원,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 대각국사 의천, 마크로 폴로를 비롯한 그가 답사하는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재구성되는 ‘역사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구성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최부의 <표해록>과 연루되면서도 동시에 장소에 대한 역사 스토리텔링이라는 독립적인 가치 역시 지니게 된다. 그리고 역사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이점을 지닌 문자라는 매체에 의해 여행 경험이 재매개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상을 매개로 재구성되는 관광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최부의 모습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영상 매체에 기반한 독자적인 텍스트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관광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양상을 보여준다.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인범이 경험한 여행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최부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나레이션) 도저성에 머무르는 내 내 봄비가 내렸습니다. 낭택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또 다시 최부를 생각했습니다. 최부 또한 명나라의 낯선 마을들을 여행하며 이집과 유사한 지방 관리들의 저택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세월을 뛰어넘어 그가 보았을 것만 같던 풍경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에서 서인범은 자신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된 낭택의 모습과 봄비를 맞았던 경험에 대해 위와 같이 서술한다. 이때 그는 단순히 낭택의 구조나 역사 등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경험과 함께 당시 최부의 모습 떠올린다. 분명 관광지로 변화한 도저소의 낭택과 당시 최부가 경험했던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봄비를 맞으며 지방 관리들의 집을 관광하는 여행객의 심정을 최부의 마음과 연루시켜 서술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상의 시각성을 통해 독자들에게 ‘장소의 현재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다시 말해, 서술자의 나레이션을 통해 최부의 여정을 언급하지만, 영상을 통해 그 장소의 현재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위 인용에서도 최부의 시선보다는 서인점이 서 있는 현재의 장소성이 강하게 전달된다.

자신의 여행 경험을 최부와 연루시켜 서술하는 부분은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나레이션) 최부가 지나갔던 수로와 다리의 고장 소흥에서 수양 마을의 멋과 맛 그리고 그것을 이어준 오랜 역사를 두루 만났습니다. 최부는 그가 보았던 풍경들을 조선에 품고 와서 나라의 발전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종에게 구했습니다. 최부의 흔적을 찾아서 떠난 여행, 훨씬 편안하게 그의 뒤를 따라온 여행이었지만, 저도 이 수양 마을에서 제가 만난 풍경들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위 인용은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에서 서인범이 수양 마을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이다. 이때 그는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 인식 중 위민사상과 같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신하 혹은 관료로서의 자기 인식을 활용하며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에서 서인범은 자신의 여행 경험을 <표해록>에 나타나는 최부의 자기 인식과 연결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자기 성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서술하면서 끊임없이 최부의 <표해록>을 연관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아래의 인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최부의 <표해록>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나레이션) 오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야만 합니다. 최부는 항주에서 소주로 이동하던 당시 오진에 들리지 못했습니다. 운하 마을의 건축과 기술, 사람살이에 관심이 많았던 최부가 만약 이곳에 들렀더라면 아마 감탄해서 자세히 기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최부의 <표해록>에 바탕을 두지만 동시에 최부가 방문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지역 전반에 대한 여행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행의 현재성을 강조할 수 있고,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기에 유리한 영상 매체라는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의 과거 혹은 <표해록>의 시대의 역사보다는 ‘현재 지역에서 나타나는 관광 자원’에 대한 서술을 보여준다.



(나레이션) (1) 명나라 때 북경으로 먼 길을 떠나던 최부는 이 강위에서 외국배와 선박들이 빗살처럼 늘어선 풍경을 보았습니다. 저작거리엔 금은이 쌓여 별천지였다는 항주. 반짝이는 항주의 야경이 옛 운하도시의 전설을 이어가는 듯 합니다.



(나레이션) (2) 항주의 유명한 관광지 서호에 들렸습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독특한 예술 공연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장희모 감독의 수상 뮤지컬 인상서호입니다. 서호의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로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펼쳐집니다.

위 인용은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에서 항주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에 관한 장면이다. 서인범은 자신의 항주 여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과 같은 장면을 통해 최부의 눈에 비친 장소의 모습을 서술한다. 그리고 (2)와 같이 현재 항주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를 소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행 경험을 서술하는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독자들을 서인범의 여정 속에서 <표해록>에 서술된 최부의 모습과 함께 그 장소와 관련된 현재의 관광 요소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처럼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서술자가 해당 장소를 여행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과 함께 <표해록>에 나타나는 최부의 눈에 비친 장소의 모습과 함께 앞선 인용에 나타나는 인상서호뿐만 아니라, 전통 찻집, 축제나 명소, 옛길, 지역 특유의 문화,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지역과 관련은 없지만 현재 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 명소(서커스 등)을 비롯한 그가 답사하는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 요소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표해록>에 나타나는 최부의 모습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해당 장소에 대한 ‘관광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최부의 <표해록>과 연루되면서도 동시에 장소에 대한 관광 스토리텔링이라는 독립적인 가치 역시 지니게 된다. 그리고 관광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현장감과 현재의 모습을 소통’하는데 이점을 지닌 영상이라는 매체에 의해 여행 경험이 재매개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마치며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최부의 <표해록>과 그것에 바탕을 두고 기획된 도서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와 다큐멘터리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여행 경험을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기획하는 양상은 주로 OSMU의 맥락에서 서사로 제시된 여행 과정이나 여행지의 모습을 영상이나 축제 혹은 게임 등으로 매체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본고에서 주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인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와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표해록>에 나타나는 최부의 장소 인식이나 행동 그리고 감정 등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문자와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의미와 가치를 형상화한다. 다시 말해, 문자에 기반한 도서 매체인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는 최부의 장소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장소와 관련된 역사적 문헌을 적극적으로 인용한다. 그리고 서인범이 방문한 장소를 매개로 그의 여행 경험, <표해록>에 나타나는 최부의 장소 인식, 끝으로 문헌 인용 혹은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장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연루시키는 ‘역사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영상 매체에 기반한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최부의 시선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장소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관광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서인범이 방문한 장소를 매개로 <표해록>에 나타난 최부의 삶과 함께 독자들이 현재 방문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관광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 그리고 <명대의 운하길을 가다>는 각각 독립적인 여행 스토리텔링 콘텐츠이면서 동시에 여행 경험의 재매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와 가치의 차이로 인해 최부 <표해록>에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의미

로 확장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고에서 살펴본 세 텍스트는 각각 조선후기 최부가 경험한 명대 운하길 여행기, 명대 운하길에 대한 역사 스토리텔링, 명대 운하길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관광 스토리텔링이라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 텍스트는 최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명대 운하길의 모습,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과거의 역사, 현재의 관광이라는 맥락에서 거대한 이야기 세계를 형성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살펴본 세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 양상은 추후 문학을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 최부, 『표해록』, 김찬순 역, 보리, 2004.
- 서인범,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항부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 한길사, 2012.
- <EBS 세계테마기행-중국 명대 운하길을 가다 1~4부>, 2012년 5월 14일~2012년 5월 17일 방영.

2. 2차 문헌

- 김경미, 「최부 『표해록』의 관광학적 고찰」, 『관광경영연구』 Vol.83, 관광경영학회, 2018.
- 류철균 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 박기수, 「서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간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No.3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신동희·김희경,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연구:스토리텔링과 개념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0, 한국콘텐츠학회, 2010.
- 안영길, 「『漂海錄』 문화콘텐츠 만들기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1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 이윤희, 「여행 내러티브에 대한 퍼스 기호학적 접근」, 『기호학연구』 Vol.45, 한국기호학회, 201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1984.
- 최시한, 「이야기 콘텐츠의 창작과 전용-원 소스 멀티유스(OSMU)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Vol.2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7.
- 마라-로이어 라이언, 『스토리텔링의 이론·영화와 디지털을 만나다』, 조애리 외 역, 한울, 2014.
- 빌헬름 딜타이, 『체험·표현·이해』, 이한우 역, 책세상, 2002.
-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 『재매개-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 헨리 젠킨스, 『컨버전스 컬처: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충돌』, 김정희원·김동신 역, 비즈앤비즈, 2008.
- M. W. 마틀린, 『인지심리학』(6판), 민윤기 역, 박학사, 2007.

A Study on Trans-media Storytelling using Travel Experiences

– Focused on *Choi-Bue's Pyohae-rok*

Yoon, In-Sun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trans-media storytelling that appears in the process of retelling *Choi-Bue's Pyohae-rok* to storytelling contents. To this end, we pay attention to *Walking along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and *Going along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retelled around *Pyohaerok*. These two texts use the perception of the place, actions, and emotions that appear in *Choi-Bue's Pyohae-rok* as a framework for the creator's perception of the travel. And it forms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the medium that remediates it. *Walking along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remediates the travel experience through letter media, and retells *Choi-Bue's Pyohae-rok* into a storytelling based on history. And *Going along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remediates the travel experience through video media, and retells *Choi-Bue's Pyohae-rok* into a storytelling based on tourism. Each of the three texts has an independent value: the travelogue on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the historical storytelling on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and the tourism storytelling appearing on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se three texts can be said to be trans-media storytelling that forms a huge story-world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the past and tourism of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centered on the *Choi-Bue's Pyohae-rok*.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texts can function as a possibility for planning trans-media storytelling contents using literature.

Keywords : Travel experience, *Choi-Bue's Pyohae-rok*, *Walking along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Going along the Waterway of the Ming Dynasty*, trans-media storytelling, letter medium, visual medium, history storytelling,

tourism storytelling, remediation

투고일: 2021. 02. 20./ 심사일: 2021. 03. 11./심사완료일: 2021. 03. 12.